

한양대학교 2021학년도 논술전형

인문계열 (오후 1)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1.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십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지를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문제] (가)의 내용을 요약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나)에 드러난 풍자의 의미를 밝히고 (다)에 보이는 화자의 당혹감에 대해 논하시오. (1,200자, 100점)

(가)

폭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재물에 물리적 피해를 가하는 인간의 공격적 행위를 일컫는다.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은 폭력을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상해, 장애, 혹은 사망을 낳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정의는 오랜 세월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통념에 따라 폭력의 개념을 ‘비합법적이거나 공인되지 않은 무력의 사용’으로만 규정하며, 그 특징을 직접성, 신체성, 개별성, 일시성, 위법성 등으로 추려내는 연구들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여러 연구자들은 기존의 정의가 폭력의 작은 일부만을 담고 있을 뿐이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들은 폭력의 개별적이고 가시적인 현상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한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함께 더 큰 차원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폭력을 통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폭력은 지배 세력이나 주류 집단에 의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하위 계층이나 소수집단이 사용하는 폭력은 거기에 저항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위로부터의 폭력이 아래로부터의 폭력을 부른다는 것이다. 전자는 크고 체계적이지만 지속적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으며, 후자는 작고 국지적이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며 으레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폭력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정의하려고 한 학자는 갈통이다. 그는 폭력이란 인간 존재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결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전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나아가 직접 폭력과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폭력을 구분하고, 그 다른 폭력의 특성과 작동 방식을 밝히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기준에서 직접 폭력이란 ‘특정 행위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자행된 육체 무력화, 극단적인 경우 살해를 포함하는 건강 박탈’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 이전의 폭력에 대한 통념과 부합한다. 이보다 일상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작동하며 지속적으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폭력을 그는 구조적, 간접적 폭력이라 명명했다. 이는 이후 학자들에 따라 비가시적 폭력, 제도적 폭력, 일상적 폭력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구조적 폭력은 그 행위가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지가 쉽지 않다. 일상에서 관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각이 어려운 것이다.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도 제도와 공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정당하고 합법적인 집행으로 비쳐진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1대1로 대응되지 않는 것, 피해자와 피해 사실이 분명한 데 반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러한 폭력 유형의 특징이다. 가해자가 윤리, 제도(법률), 조직, 자본 뒤에 숨어 버리거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사라지고, 아니면 책임이 이리저리 전가되는 가운데 가해자가 증발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언론이나 종교, 또는 학문 등이 가해 사실을 합리화, 정당화하거나, 화제와 논점을 돌려 사안을 은폐, 왜곡하는 것도 주요 특징으로 설명된다.

오늘날 구조적 폭력의 개념은 사회의 여러 차원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논의되고 있다. 여성은 오랜 세월 광범위하면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지만, 그것이 제도와 윤리를 내세워 가해진 폭력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근래의 일이다. 록 너슨은 산업화된 북반구에 의해 유발된 환경적인 재앙이 남반구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지칭하기 위해 ‘느린 폭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다. 이 ‘느린 폭력’은 점진적이고 시야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에 흩어져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파괴의 폭력이자 폭력으로 전혀 간주되지 못하는 마모적인 폭력이다. 최근에는 자유 경쟁과 공정을 내세우는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많은 피해와 희생의 토대에서 작동하는지, 또 그 피해와 희생이 어떻게 은폐되고 정당화되는지를 입증하는 논의도 활발하다.

(나)

독고민은 간수를 따라 감방 구역으로 들어섰다. (...) 독고민은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 그는 두 주먹을 가슴에 모으고, 턱을 치킬싸한 채,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얼굴 표정은 점잖고, 높은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의젓함이 있었다. 독고민은 물었다.

“저분은 무슨 죄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 저 사람은 원래 유명한 시인이데, 그의 죄목은 ‘투시(透視)하려 한 죄’입니다. 그의 눈길을 보십시오. 마치 벽을 뚫고 아득한 곳을 바라보는 것 같지요. (...) 저 사람이 순전히 여자의 알몸만 투시한 것으로는 생각지 마십시오. 만물을 다 그렇게 봤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존재를 뚫어봤다는 소립니다. (...) 권력가들도 한때는 이 사람을 사랑하여 펍 썬떡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두려워하여 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

다음 감방 창을 열고 간수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 거기에는 웬 남자가 책상에 앉아서 제도(製圖)를 하고 있었다.

“(...) 저 사람의 죄목은 ‘결론을 내려고 한 죄’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작업은, 제도가 아니고 기호신학(記號神學) 문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과, 철학과, 논리학과 거기에다 수학까지를 뭉친, 새로운 방법으로 존재의 구조를 수식화한다는 게 저 사람의 소원입니다. (...) 그는 밤이나 낮이나 길거리에서나 방에서나, 산에서나 바다에서나,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결론만 생각했습니다. (...)”

그 방에는, 용모가 매끈한 젊은이가 침대에 걸터앉아서, 손에 든 한 장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울고 있었다. (...)

“저 사람의 죄목은 ‘잊어버리지 않는 죄’입니다. 그저 그렇게만 말씀드려서는 얼른 어림이 안 가실 테지만, 이 사람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 죄로 여기 붙잡혀온 것입니다. 첫사랑이 다 그렇듯이, 이 청년도 쓴잔을 마셨던 것이예요. (...) 저 사진 속의 여자가 다른 여자보다 나은 것은 그를 배반했다는 사실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아무리 타일러도 쓸데없습니다.”

최인훈, 『구운몽』 (1962)

(다)

더운 날

적(敵)이란 해면(海綿)* 같다

나의 양심과 독기를 빨아먹는

문어발 같다

흡반 같은 나의 대문의 명패보다도

정체 없는 놈

더운 날

눈이 꺼지듯 적이 꺼진다

김해동(金海東) - 그놈은 항상 약삭빠른 놈이지만 언제나

부하를 사랑했다

정병일(鄭炳一) - 그놈은 내심과 정반대되는 행동만을

해왔고, 그것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다

더운 날

적을 운산(運算)*하고 있으면

아무 데에도 적은 없고

시금치밭에 앉는 흑나비와 주홍나비모양으로

나의 과거와 미래가 숨바꼭질만 한다

“적이 어디에 있느냐?”

“적은 꼭 있어야 하느냐?”

순사와 땅주인에서부터 과속을 범하는 운전수에까지

나의 적은 아직도 늘비하지만

어제의 적은 없고

더운 날처럼 어제의 적은 없고

더워진 날처럼 어제의 적은 없고

김수영, 「적」 (1962)

* 해면(海綿) : 흡수력이 강한 바다 섬유 형태의 하나, 갯솜으로도 불림.

* 운산(運算) : 1차 의미는 수학의 계산이지만, 여기서는 하나하나 따져 헤아린다는 뜻.